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임 김은철 전무이사 취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신임 전무이사로 김은철(金恩哲) 前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은철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는 취임사에서 “열악한 건설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노동자의 땀방울과 열정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고용노동행정 현장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노동자 복지 및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임 김은철 전무이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전무이사의 임기는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이다.

붙임. 신임 전무이사 사진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 규 탁	(02-519-2011)
		담당자	과 장 이 상 민	(02-519-2013)

붙임

신임 전무이사 사진



김은철(金恩哲) 전무이사